

“신입사원 직무수행 능력 필기시험 성적과 반비례”

이낙연의원 주공 202명 근무평점 조사

신입사원의 역량, 업적 등 직무수행 능력은 입사시 필기시험 점수와는 반비례하고 면접시험 점수와는 비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국회 건교위 소속 민주당 이낙연 의원에 대한 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공에 입사한 신입사원 202명의 전체 근무평점 점수(5점 만점에 4.124점)와 면접시험 점수의 상관계수는 0.189를 기록했다.

반면 필기시험 점수와 직무수행능력의 상관계수는 -0.122로 집계돼, 신입사원의 직무수행 능력은 면접시험과는 비례 관계에 있지만 필기시험 점수와는 다소 반비례하는 것으로 풀이됐다.

신입사원의 직무수행 능력은 전체 서류전형 점수와도 부(-)의 상관관계(상관계수 -0.063)를 보였다.

서류전형별로는 영어 등 어학점수, 자격증 보유자 등에 부여되는 가점의 상관계수는 각각 -0.060, -0.187을 기록한 반면 학점은 0.123으로 집계돼 어학 점수보다는 학점이 신입사원의 근무 능력을 더 잘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밖에 신입사원의 직무수행 능력은 인·적성 검사(0.092), 나이(0.122) 등과도 다소 비례하지만 성별(-0.021)과는 상관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한국쓰리엠 나주 6공장 준공

전기·전자 부품 양면접착테이프 본격 생산

한국쓰리엠은 지난 25일 나주 문평산단에 위치한 나주공장에서 한국쓰리엠 마이클 로만 사장과 박준영 전남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공장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생산체제에 들어갔다.

제6공장은 1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9천500㎡ 부지에 건축면적 4천400㎡로 준공됐다. 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전기와 전자, 통신 부품용 양면 접착테이프 등으로 쓰리엠의 핵심제품이다.

쓰리엠 나주공장은 지난 1990년부터 가동됐으며, 580여명의 임직원이 연간 7천50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주력 생산제품은 산업용 테이프, 자동차 보수·촉매 정화제, 주방용 수세미류, 전기 통신제품, 사무용 제품 등이다.

/나주=정철한기자 chjung@kwangju.co.kr

상의 내일 ‘광주·전남고용포럼’

광주상공회의소는 29일 오후 2시 7층 회의실에서 기업체 및 경제유관기관 고용·인적자원 관련담당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1회 광주·전남 고용포럼을 개최한다.

포럼에서는 홍성우 전남대 경영대학장이 제 1주제인 ‘광주·전남지역 노동시장 구조와 고용정책 방향’, 최광신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가 제 2주제인 ‘광주지역 인력수급 분석 및 적극적 지역적응능력개발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다.

이어 이한재 조선대 교수의 사회로 이양정 한국노사관계연구원 원장, 장하경 광주대 교수, 김영태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사무처장이 지평토론회를 갖는다.

광주·전남 고용포럼은 광주상의가 지역내 고용·노동정책 관련기관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실업문제 해소, 신규고용 창출방안,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 해결방안 등에 대한 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창립됐다.

/이종태기자 jitlee@kwangju.co.kr

건강보험 지급액 10조원 넘어

올 상반기 건강보험 지급액이 10조3천839억원에 달하는 등 보험금여부가 급속히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암을 비롯한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의 보장수준이 대폭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정부 지원금을 포함해도 지난 2003년 이후 흑자로 전환했던 건강보험재정이 올해 다시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2006년 상반기 건강보험 주요 통계’에 따르면 보험 급여비는 전년도 상반기의 8조7천471억원보다 18.7% 증가했으나 보험료 총액은 9조6천174억원으로 전년도의 8조7천255억원에 비해 10.5% 늘어나는 데 그쳤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와 관련, “임원환자 식대의 건강보험 적용 등에 따라 하반기에는 급여비 지출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담뱃값 인상이 여의치 않은 사정을 감안하면 올해 2천억 원 정도의 재정적자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최진만기자 man21@kwangju.co.kr

참여정부가 부동산시장의 항구적 안정을 목표로 내놓은 8·31부동산종합대책이 오는 30일로 1년을 맞는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반적인 부동산시장 하향 안정 추세에 대해선 일단 ‘성공작’이라는 평가다. 하지만 정부 각료들 사이에서 비롯된 ‘버블논쟁’, 수도권과 지방간 주택가격 양극화 심화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8·31의 핵심조치인 ‘세금폭탄’이 현실화되지 않은 가운데 실수요자들의 세금 부담 증가, 지방 건설경기 침체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광주·전남 부동산 시장=27일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에 따르면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의 부동산시장은 8·31대책 이후 ‘버블논쟁’, 3·30대책 등을 거쳐 하향 안정세를 보이



‘추억의 7080 맛’ 보세요

광주신세계는 백화점 식품관에서 ‘오랜 벗과 함께하는 추억의 7080 음식여행’ 행사를 지난 25일부터 열고 있다. 오는 31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에선 1970~80년대 학생들의 간식거리인 전통과자, 죽발, 부침개, 찜빵 등이 선보이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동아건설 본입찰 오늘 마감

전기사업자등록 회복 안돼·입찰가 낮아질 듯

동아건설 매각을 위한 본입찰이 예정 대로 28일 마감된다.

27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동아건설 채권단은 28일 오후 5시까지 공동 매각주간사인 삼정 KPMG를 통해 인수 희망업체 14곳으로부터 본입찰 제안서를 접수받는다.

캠코는 마감 이후 2~3일간 입찰업체 평가와 채권단 동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동아건설 1, 2대 채권자인 콜드만삭스와 캠코는 지난해 12월20일 동아건설을 ‘매각후 법정관리전환’ 방식으로 회생시키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매각절차를 진행해왔다.

한편 산업자원부가 동아건설이 회생되더라도 최소한 전기사업자등록(면허)을 회복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리며

따라 매각가격은 당초 예상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김우석 캠코 사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동아건설은 원자력발전소 기술능력을 갖춘 인력이 그대로 남아 있어 인적자원의 가치가 높다”며 동아건설이 전기사업 부문에서 쌓아온 노하우를 높이 평가했다.

채권단은 동아건설 청산가치가 2천 800억원에 불과하지만 경영권 프리미엄과 해외 브랜드 이미지를 감안할 때 매각가격이 5천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기대해왔다.

이와 관련, 캠코 관계자는 “인수희망업체에 발송한 투자정보서에 ‘일반건설 면허 승계는 문제가 없지만 전기공사사업 면허 회복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통지한 바 있다”고 말했다.

/최정민기자 choice@kwangju.co.kr

8·31 부동산 대책 시행 1년

광주·전남 주택·토지시장 안정세 뚜렷

고 있다.

광주·전남은 일부 단지를 중심으로 시세 분양가를 밀도는 아파트가 등장하는가 하면 급매물조차 매매가 이뤄지지 않는 등 전반적인 약보합세가 뚜렷하다. 서울 아파트는 8·31대책 이후 3·30대책 이전까지 10.13% 올랐지만 3·30대책 이후에는 4.98%로 상승폭이 절반 이상 감소했다.

특히 토지시장은 8·31대책의 ‘직격탄’을 맞았다. 공들여신도시인 나주는 물론이고 관광래저도시 해남·영암, 기업도시 무안군 등의 거래가 딱 끊겼기 때문이다. 나주의 경우 올 상반기에도 땅값이 6.48% 올랐지만 실수요자는 자취를 감춘 상황이다.

절반의 성공 평가불구 수도권-지방 양극화 심화
연말 ‘세금폭탄’ 현실화·당분간 보합세 이어질 듯

전국적으로도 토지거래량이 지난 1·4분기와 2·4분기에 각각 26.3%, 34.1%나 감소하면서 8·31대책의 효과를 실감케 하고 있다.

◇세제 위력은 ‘이제부터’=전문가들은 8·31대책이 위력을 발휘하는 것은 올 연말부터라고 입을 모은다.

8·31의 핵심조치인 ‘세금폭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이다. 종합부동산세는 기준이 9억초과주택에서 6억초과로, 인별 합산과세가 가구별 합산으로 바뀌어 오는 12월 첫 부과된다. 1가구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50% 종과도 내년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이같은 세부담을 놓고 보완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투기세액만 아니라 1가구 1주택자나 노령층 등 실수요자들도 세금부담 증가가 크다는 주장이다. 또 과도한 세금 부담으로 지방 건설경기가 크게 위축된 것도

정부로서 큰 부담이다.

이에 따라 향후 부동산시장에 전망에 대한 반응도 제각각이다. 전문가들은 적어도 2~3개월간은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는 데는 대체로 의견을 같이 하면서도 안정세 지속 여부나 상승 시점 등에 대해선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피드뱅크 정영회 호남지사장은 “광주·전남 부동산시장은 8·31대책 이후 안정세에 접어들었으며 이같은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며 “주택시장의 경우 공급업체의 브랜드나 지역 등에 따라 양극화 현상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정민기자 choice@kwangju.co.kr



“국내 금융시장 토종은행 필요”

황영기 우리금융 회장 다시 강조...신한 라 회장 비판론 반박인 듯

황영기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토종은행 존립 필요성을 다시 강조하고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라오한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최근 토종자본론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데 이어 황 회장이 은행 소유구조의 다양화 방안을 제시함에 따라 연초 은행권을 뜨겁게 달궜던 토종은행 육성론이 재부각되는 양상이다.

27일 은행권에 따르면 황영기 회장은 최근 임원들과 만나 토종은행에 대한 신념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황 회장은 “우리은행처럼 토종자본이 지배하는 은행이 존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황 회장이 한동안 침묵을 깨고 토종은행에 대한 견해를 다시 밝힌 것은 최근

신한지주 라 회장이 ‘토종자본론’ 탓에 한국금융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비판한 이후 토종은행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생길 것을 우려한 데 따른 것으로 관측된다.

우리은행이 올해 유일한 토종은행임을 공식 선포하고 영업전에 임하고 있어 토종은행론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형성은 은행 영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황 회장은 “토종은행 만이 좋은 은행이라거나 외국은행 만이 좋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흑백논리로 비쳐지는 것에 경계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회장은 “한국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외국인 주주와 내국인 경영진 행에 대한 견해를 다시 밝힌 것은 최근

모두 외국계인 은행, 내국자본과 내국인 경영진으로 구성된 은행 등 다양한 소유구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내 최대 은행인 국민은행의 외국인 지분이 80%를 넘었고 신한지주 역시 재일동포 지분 17%까지 포함하면 외국인 지분이 80%에 달하는 등 우리은행을 제외한 대부분 시종은행은 외국인 지분이 절반을 웃돌고 있다.

황 회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은행의 토종은행 자격 유지를 위한 대안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 회장은 “만약 정부에서 토종은행으로 유지시키려고한다면 국민연금과 국민공채, 교원공채 등 연금과 은행 지분을 보유하는 공기업은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연합뉴스

‘경기 쇼크’ 우려 현실화 조짐

호우·파업·추석 연휴 등 부정적 변수 줄줄이 대기

집중호우(7월), 자동차회사 노조 파업(7~8월), 발전노조 파업 예고(9월), 추석 장기연휴(10월)...

경기급랭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한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7월 경제지표 쇼크 예고=정부는 이번 주에 발표될 7월 산업생산과 서비스업합동지표가 부진할 것이라고 일찌감치 예고했다.

기아차는 지난달 18일부터 부품과업을 한 이후 지난 25일까지 손실대수와 매출차질액이 각각 3만8천여대와 5천7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9월 전력대란 오나=9월에는 발전노조의 파업이 예고됐다. 중재가 진행되고 있어 파업이 현실화될지를 판단하는 것은 성급하지만 2002년 이후 4년 만에 발전노조의 파업이 다시 발생한다면 전력수급에 차질이 우려된다.

1=8월 지표도 자동차 노조의 파업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현대자동차 노조의 파업은 종료됐지만 쌍용자동차의 파업은 지난 25일 노사협상 잠정합의안이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돼 노사대립이 격화될 양상이고 기아자동차의 부품과업은 아직 진행형이다.

기아차는 지난달 18일부터 부품과업을 한 이후 지난 25일까지 손실대수와 매출차질액이 각각 3만8천여대와 5천7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9월 전력대란 오나=9월에는 발전노조의 파업이 예고됐다. 중재가 진행되고 있어 파업이 현실화될지를 판단하는 것은 성급하지만 2002년 이후 4년 만에 발전노조의 파업이 다시 발생한다면 전력수급에 차질이 우려된다.

10월 추석연휴 최장 9일=10월에는 추석 연휴가 기다리고 있다. 9월30일부터 추석연휴가 끝나는 10월8일까지 10월2일과 4일을 제외하고는 모두 휴일이어서 9월30일부터 10월8일까지 9일 동안 쉬는 업체들도 많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추석이 9월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차표와 생선 관련 지표가 둔화될 수 있다.

◇전문가 견해=경제 전문가들은 이런 변수들의 영향에 대해 일시적인 것이라는 전망과 추석적 인기를 가늠해볼 수 있다는 분석이 엇갈리고 있다.

이상재 현대증권 경제조사팀장은 “8월에도 파업이 있었지만 생산증가를 회복 가능성이 남아 있고 추석 장기연휴도 근본적인 경기회복을 판단할 수 있는 요인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하남 3지구·순천신대배후지구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선정

광주하남3지구, 순천신대배후지구 등 전국 7개 지역이 집단에너지 공급대상 지역으로 새로 지정됐다.

산업자원부는 27일 이들 2개 지역을 비롯 김포 양촌지구, 인천영종지구, 평택소사벌지구, 화성향남2지구, 고양삼송지구 등을 집단에너지 공급대상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최진만기자 man21@kwangju.co.kr

로또복권 (제195회)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당첨자 수
7 10 19 22 35 40	31	
등 위		당첨금액(원)
1	6개 숫자 일치	918,992,591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 일치	25,527,572
3	5개 숫자 일치	996,346
4	4개 숫자 일치	47,916
5	3개 숫자 일치	5,000

파워복권 (제18회)

등위	당첨금액(원)	당첨번호
1	10억	7조 600687
2	5억	7조 600686 7조 600688
3	1천만	1등과 조가 다른 번호
4	1백만	각조 77404
5	1만	각조 564
6	2천	각조 41
		각조 16
7	1천	각조 3
		각조 7